

한국어 양상 범주의 형식의미론적 접근에 대하여*

전영철**

초록 한국어의 양상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술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는 소위 Lyons (1977, p. 452)의 정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본고는 양상에 대한 이러한 관점과 정의가 부적절함을 밝히고, 양상 표현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는 연구 방법 및 정의를 모색한다. 양상 표현들이 현실은 아니지만 현실과 모종의 관련을 맺는 세상들에 관한 것을 표현한다는 직관을 반영하여, 양상을 ‘현실의 일부일 필요가 없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범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가능세계의 개념이 매우 효과적임을 논하고, 따라서 가능세계의미론을 수용하는 형식의미론이 양상의 설명에 매우 적합함을 보인다.

한편 본고는 한국어 양상 범주에서 우연적 구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우연적 구성은 매우 풍부한 양상 표현들을 제공해 주며, 또한 매우 정연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관련되는 가능세계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 인식 양상, 당위 양상 그리고 동적 양상의 세 가지 양상의 하위 분류 모두에서 가능과 필연의 체계적 대립을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형식의미론적 연구가 가능세계의 종류 및 가능과 필연의 대립을 명시적으로 포착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까닭에, 형식의미론적 연구가 우연적 구성의 정연한 양상 체계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인다.

주제어 양상, 인식 양상, 당위 양상, 동적 양상, 가능 세계, 가능, 필연, 형식의미론, 가능 세계의미론, 우연적 구성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론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바를 그대로 기술하는 일이 될 것이다. 철수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철수가 와’라고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따위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실에 대해 화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표현하곤 한다. ‘철수가 오는 것 같아’, ‘분명히 철수가 와’, ‘철수가 와야 해’ 등과 같은 표현들이 흔히 사용된다. 이런 표현들은, ‘철수가 와’라는 문장의 의미, 즉 명제에 대해 화자가 자신의 추측, 확신 등의 부가적 의미를 덧붙인 결과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어떤 명제에 대해 화자의 생각이 덧붙여지는 현상들과 관련되는 논의를 할 것이다. 그러나 ‘화자의 생각이 덧붙여지는 현상’이라는 것이 쉽게 설명될 리가 없다.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걸잡기 힘든 존재여서 ‘화자의 생각’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어떻게 분류될 것인지 등의 쉽지 않은 의문들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측대로, ‘화자의 생각이 덧붙여지는 현상’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에는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대략 이러한 현상에 대한 언어학적 범주를 양상(modality)이라고 부른다.

자연언어의 양상에 대한 연구는 크게 기술주의적 관점과 형식의미론적 관점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 그런데 한국어 양상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기술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형식의미론적 관점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형편이다.² 따라서 본고에서 언급하게 될 이전의 연구들은 주로 기술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본고는 형식의미론적 관점에서 한국어 양상 표현들을 설명할 것이며, 이것이 기존의 기술주의적 설명보다 더 적절함을 보이려고 한다. 형식의미론적 접근이 한국어

1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의 양상 연구도 언급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기술주의적 연구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2 형식의미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양상 연구로는 Mun (2016), 양정석(2017), 명정희(2021b) 등이 있다.

양상 현상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보다 적절하게 포착하고, 나아가 이를 보다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고는 형식의미론의 엄격한 형식화를 견지하기보다는 가능세계의미론적 접근 방법의 동기 및 장점을 강조하는 설명 방식을 추구하고자 한다.

본고는 한국어의 양상 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양상에 대한 정의부터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양상 표현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양상에 대한 정의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양상에 대한 기존의 정의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여, 본고에서 논의하게 될 양상 표현의 범위를 설정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양상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양상 표현들이 가능세계의미론적 접근에 의해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양상 범주에서 우연적 구성(periphrastic constructions)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와 관련되는 논의를 덧붙이고자 한다.

2. 한국어 양상의 정의와 표현들

먼저 한국어 양상에 대한 연구들에서 어떤 예들이 거론되었고, 이들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를 살펴보자. 박진호(2011)에 다음과 같이 지금까지 흔히 논의되어 온 것들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³

- (1) 가.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명제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믿음의 정도(commitment)를 나타냄.

3 박진호(2011)은 (1)의 분류를 자신의 견해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한국어 양상 연구들에서 다루어지는 예들을 폭넓게 제시하는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modality'를 '양상'이 아니라 '양태'로 쓰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양태'를 선택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양상'을 사용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곧 언급할 것이다.

예: 확실성(certainty), 개연성(probability), 가능성(possibility)

나. 당위 양태(deontic modality): 사태의 바람직함에 대한 판단을 나타냄. 또는 사태의 발생 책임이나 권리가 사태 내의 특정 참여자에게 있음을 나타냄.

예: 의무(obligation), 허락/허용(permission)

다. 동적 양태(dynamic modality):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좌우하는 원인이 사태 내부의 참여자에게 있음을 나타냄.

예: 능력(ability), 의도(intention, willingness), 바람(wish)

라. 감정 양태(emotive modality, evaluative modality): 명제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나타냄.

예: 놀라움, 유감스러움, 아쉬움, 후회, 다행으로 여김, 두려움, 경계심 등

마. 증거 양태(evidential modality): 정보의 근원, 입수 경로를 나타냄.

예: 직접 경험(direct evidence), 傳聞(hearsay), 추론(inferred)

그는 이어서, 위의 양상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분류되어 왔음을 언급하면서, 양상이 전통적으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범주’로 정의되어 왔다고 하였다.

위의 양상들에 해당하는 예를 간략히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2) 가. 곧 비가 오겠어.

곧 비가 올 것 같아.

틀림없이 곧 비가 와.

나. 지금 떠나도 돼.

지금 떠나야 돼.

다. 철수는 이길 수 있어.

내가 가겠어.

라. 내가 양말을 뒤집어 신었네.

일찍 출발할걸.

마. 철수가 집에 있더라.

싱가포르는 너무 덥더라.

위의 예들은 각각 (1)의 하위 양상 부류들에 대응되는데, 밑줄 친 부분이 양상 표현이다. 이 표현들은 선어말어미(‘-겠-’, ‘-더-’), 어말어미(‘-네’), 우연적 구성(‘-ㄹ 것 같-’ 등), 부사(‘틀림없이’) 등으로 실현되어 형식적 다양성을 보여 준다.

한국어에서 실현되는 양상 표현에 대한 정의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소위 Lyons (1977)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들이다. 몇 가지 예들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3) 가. 조일영(1998): ‘화자가 인식한 명제에 대해 갖는 심리적, 정신적 태도’

나. 이선웅(2001): ‘화자가 명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 문장 내에서 표현하는 심리적, 정신적 태도’

다. 박재연(2006): ‘명제에 대한 화/청자의 주관적인 한정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

라. 김건희(2016):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

위 정의들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양상을 정의하고 있다. 모두 ‘명제’, ‘화자’, ‘태도’ 등이 정의에 드러난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할 때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조일영(1998)은 시제를 포함하고, 이선웅(2001)은 정감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서 격조사 ‘깨(서)’, 보조사 ‘조차’나 ‘마저’, 선어말어미 ‘-시-’ 등을 받아들인다. 한편, 박재연(2006)은 정감적 요소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반면에, 다른 연구

들과 달리 정보의 내면화의 정도 등을 도입하여 ‘-지’, ‘-거든’ 등의 종결어미를 양상 표현으로 본다. 양상에 대해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택되는 예들 사이에 이와 같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추정컨대, 정의 자체가 엄격하지 않아서 그 정의를 실제의 예에 적용할 때 각자의 주관적 의견이 상당히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위 정의들은 대부분 Lyons (1977, p. 452)의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인용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각자가 더 고려할 만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Lyons가 양상을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정의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Lyons (1977, p. 452)는 문장 부사(sentence adverb)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인데, 문장 부사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데 쓰이고 이러한 문장 부사들 중 다수가 양상을 표현한다고 언급한다. 문장 부사들의 예로는 양상 부사인 ‘possibly’ 외에도 ‘frankly, fortunately, wisely’를 들고 있다. 그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이 문장 부사 전체를 위한 정의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Lyons의 논의를 근거로 그가 양상을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정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⁴ 사실 이러한 언급이 나타나는 곳은 Lyons (1977)의 11장인데, 여기는 양상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정작 양상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17장에서는 양상을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같이 처리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다. 17장에서는 인식 양상과 당위 양상을 통해 양상을 논의하는데, 필연(necessity)과 가능(possibility)의 관점에서 인식 양상과 당위 양상을 설명한다. 여기에서도 양상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군데에서 양상에 대한 그의 생각을 분명히 엿볼 수가 있다. 그에게 양상은 필연과 가능

4 김태인(2019, p. 134)는 명제 차원에서 구현되는 화자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부사를 양태 부사어(‘아마, 확실히, 분명’)과 평가 부사어(‘다행히, 슬프게도, 안타깝게도’)로 양분하였다. 전자는 ‘화자가 해당 명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후자는 ‘화자가 해당 명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와 같이 두 종류의 부사가 구분되어야 하며, 전자만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양상의 범주에 들어온다.

의 문제로서 양상논리(modal logic)와 연결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Palmer (1986, 2001)과 Bybee 등(1994)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들도 한국어 양상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다. Palmer (1986)은 2페이지에서 양상의 정의를 다루면서 Lyons (1977, p. 452)의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가 신뢰할 만하다고 언급하였으며, 16페이지에서는 이와 비슷한 언급을 다시 하면서 Lyons (1977, p. 739)를 인용하여 주관성(subjectivity)을 강조하여 양상을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의견’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Lyons (1977, p. 452)의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는 부적절한 인용이며, 나아가 Lyons (1977, p. 739)에서 인용한 주관성도 적절하지 못하다. Lyons (1977)은 양상을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으로 구별하였을 뿐이며, 전자만을 양상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한편, Bybee 등(1994, p. 176)은 Palmer (1986, p. 16)이 Lyons (1977)에 기대어 있음을 인용하면서 이들을 따라 양상을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의견의 문법화’라고 정의하였다. Palmer (1986)과 Bybee 등(1994)가 한국어 양상 연구자들에게 끼친 큰 영향을 생각하면 이상과 같은 상황은 매우 중요한 사항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Palmer (2001)은 Palmer (1986)과 입장을 차이가 크게 난다. Palmer (2001)에서는 양상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양상을 포괄적 범주(an overall category)로 보고, 양상 체계(modal systems)와 서법(mood)으로 구분한다는 정도의 언급만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최소한 Palmer (1986)의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같은 정의를 지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⁵

5 Palmer (2001, p. 8)에서는 양상을 참/거짓 혹은 사실/비사실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편의상 약간 수정하여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Propositional modality is concerned with the speaker's attitude to the truth-value or factual status of proposition ... event modality refers to events that are not actualized, events that have not taken place but are merely potential.

또한 ‘epistemic, deontic, dynamic’이라는 용어를 von Wright (1951)에서 가져옴을 밝히는 등 양상논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Lyons, Palmer, Bybee 등이 한국어 양상 연구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해 보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어 양상 연구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양상의 정의인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이들의 연구들이 실제로는 부적절하게 수용되거나 인용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이전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정의들과는 다르게, 소위 Lyons 식의 정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기술주의적 연구들에서도 최근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가 비판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임동훈(2008, p. 219)인 듯하다. 그는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나 명제가 기술하는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opinion or attitude)를 표현하는 범주’라는 Lyons (1977)의 정의가 ‘frankly, fortunately, possibly, wisely’와 같은 문장 부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너무 범위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Huddleton and Pullum (2002, p. 173)의 정의를 반영하여 ‘명제의 사실성(factuality)과 실현성(actualisation)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표현된 범주’로 정의하고, 인식 양상을 사실성의 관점에서, 당위 양상을 실현성의 관점에서 가능세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논하였다. 이러한 양상의 논의에서는 감정 양상이 당연히 배제되었다. 그 후 일련의 박사학위논문들인 손혜옥(2016), 오승은(2018), 명정희(2021a) 등에서도 Lyons 식의 정의가 지양되어야 함이 논의되었다.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사실성 및 실현성을 양상의 논의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여 가능세계적 관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구체적인 분석들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제대로 구현되지는 못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최근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우선, 양상을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모호하게 정의함으로써 양상 표현들의 범위가 연구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1)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양상 부류들 중에서 감정 양상과 증거 양상을 제외시키고자 한다. 이 두 부류는 이전의 많은 연구들에서

도 종종 양상에서 배제되어야 함이 거론되곤 하였다. 특히 감정 양상은 양상을 화자의 ‘태도’라고 봄으로써 양상의 한 부류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태도’를 확대 해석하여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도 수용한 것으로 생각된다.⁶ 한편, 증거 양상은 양상의 한 부류로 다루기보다는 독립된 범주인 증거성(evidentiality)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다.⁷ 이것이 개념적으로 인식 양상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근본적으로 양상 부류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양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제 세 부류가 남았다. 인식 양상, 당위 양상, 동적 양상인데, 본고는 이 셋을 중심으로 한국어 양상 범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⁸

다음으로, 이렇게 추려진 인식 양상, 당위 양상, 동적 양상을 대상으로 양상의 정의에 대해 숙고해 보자. 우리는 인식 양상, 당위 양상, 동적 양상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을 바탕으로 양상의 정의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부류들의 표현들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 무엇’인가에 대해 기술한다. (2)의 예들에서 그 예들을 하나씩 가져와 보자.

(4) 가. 곧 비가 오겠어.

나. 지금 떠나도 돼.

다. 철수는 이길 수 있어.

6 이러한 이유로, ‘양태’ 대신 ‘양상’을 ‘modality’의 번역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양상논리(modal logic)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서도 ‘양상’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7 F. De Haan (1999), “Evidentiality and Epistemic Modality: Setting Boundaries,” *Southwest Journal of Linguistics* 18, pp. 83-101; 송재목(2009), 「인식양태와 증거성」, 『한국어학』 44, pp. 27-850.

8 본고는 한국어 양상이 최종적으로 이 셋으로 하위 분류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1)에서 제시된 것들 중에서 이 세 부류만이 양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 양상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는 본고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고, 또한 꽤 긴 논의가 필요한 까닭에 이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 예들은 각각 현실에서 비가 오는, 떠나는, 철수가 이기는 사건이 발생함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아니지만 현실과 모종의 관련이 있는 세상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기술한다. 현재 비가 오고 있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상 상태를 보니 이 기상 상태가 나타나는 세계에서는 비가 오는 사건이 발생할 만함을 기술한다. 현재 떠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조건들을 고려해 보니 그러한 조건들이 유지되는 세계에서는 떠나는 사건이 발생할 만함을 기술한다. 현재 철수가 이기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수의 체력 등 제반 여건들을 고려해 보니 그러한 여건들이 작동하는 세계에서는 철수가 이기는 사건이 발생할 만함을 기술한다. 이 예들은 모두 현실이 아니라 현실과 연관이 있는 어떤 세상을 끌어들여, 그러한 세상에서 일어날 만한 사건에 대해 기술한다. 그 세상이 현실과 연관을 맺는 방식은 제각기 다르지만 현실과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연관된다는 점이 공유된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양상을 ‘현실의 일부일 필요가 없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범주’라고 정의하고자 한다.⁹

인간은 언어를 통해 현실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 상황에서 이탈하여 현실이 아닌 세상에 대해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기술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 언어의 특징은 다른 의사소통 체계들과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 Hockett (1960)이 전이(displacement)라고 명명한 바 있다.¹⁰ 양상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과 연관이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해 화자가 언급하는 방식이므로, 이러한 전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문법범주이다. 전이

9 이 정의는 Portner (2009)의 다음과 같은 정의와 비슷하다: ‘modality is the linguistic phenomenon whereby grammar allows one to say things about, or on the basis of, situations which need not be real’.

10 M. Kaufmann and S. Tamura (2020), “Possibility and Necessity in Japanese: Prioritizing, Epistemic, and Dynamic Modality,” *Handbook of Japanese Semantics and Pragmatics* (ed. by W. Jacobsen and Y. Takubo), Berlin: Walter de Gruyter, pp. 537–588.

의 다른 예로 시제나 조건문 등을 들 수 있다. 시제는 현실과 시간적으로 유리된 상황과 관련되며, 조건문은 현실이 아닌 다른 상황을 가정하여 이에 대해 언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들도 양상과 같은 맥락에서 가능세계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건문은 형식의미론적 연구에서 양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능세계를 이용하여 설명한다.¹¹ 이와 같이 가능세계의 개념은 인간 언어의 중요한 특징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양상을 이러한 전이의 한 실현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소위 감정 양상은 양상의 한 종류로 보기 어렵다. 감정 양상의 표현에는 가능 세계가 관여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양상이 가능 세계와 관련되어 생겨나는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가능 세계의 개념은 형식의미론에서 채택하여 자연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양상은 형식의미론에 의해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법 범주일 것이고, 실제로도 그러하다. 또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 양상에 대한 기술주의적 연구들에서도 가능세계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는 양상의 본질이 가능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고, 가능세계 의미론을 수용한 형식의미론적 연구가 한국어 양상의 연구에 매우 효과적일 것임을 말해 준다.

3. 가능세계의미론적 접근

본고는 (1)에서 제시된 여러 부류의 예들 중에서 인식 양상, 당위 양상, 동적 양상만을 양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 양상과 증거 양상은 양상의 논의

11 A. Kratzer (1981), "The Notional Category of Modality," *Words, Worlds, and Contexts: New Approaches to Word Semantics* (ed. by H.-J. Eikmeyer and H. Rieser), Berlin: Walter de Gruyter, pp. 38-74.

에서 배제한다. 우리는 양상을 ‘현실의 일부일 필요가 없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범주’라고 정의하는데, 이 정의에는 가능세계적 요소가 들어 있다. 이제부터 가능세계의 개념을 끌어들이어 이들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인식 양상의 예들로 논의를 시작해 보자.

(5) 가. 곧 비가 올 것 같아.

나. 틀림없이 곧 비가 와.

이들은 각각 ‘추측’과 ‘확신’의 인식 양상적 해석을 가지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측은 화자 자신의 지식 혹은 판단에 의거해서이다. 먹구름이 끼었다거나 바람이 세게 분다거나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추측 및 확신의 예측을 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바꾸어 볼 수 있을 것이다.

(6) 가.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곧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

나.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곧 비가 올 필연성이 있어.

추측과 확신이 각각 가능성과 필연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제 이 가능성과 필연성을 가능세계를 이용하여 포착해 보자. 우리는 현실세계 외에도 여러 가능세계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 가능성은 ‘현실세계에서 비가 올 가능성’인데 이러한 가능성의 판단 근거는 ‘내가 아는 바’이다. 따라서 이 가능성은, ‘현실세계에서 내가 아는 바가 어떤 가능세계에서 구현된다면 그 가능세계에서 곧 비가 올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세계에서) 내가 아는 바가 구현되는 가능세계들 중에 곧 비가 올 가능세계가 존재함’과 같다. (6가)를 (7가)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6나)의 필연성은 ‘현실세계에서 비가 올 필연성’인데, 이것의 근거도 ‘내가 아는 바’이다. 따라서 이 필연성은, ‘현실세계에서 내가 아는 바가 어떤 가능세계에서 구현된다면 그 가능세계에서는 반드시 곧 비가 옵’을 뜻한다. 이것은 (7나)와 같이 ‘(현실세계에서) 내가 아는 바가 구현되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곧 비가 옵’과 같다.

(7) 가. 내가 아는 바가 구현되는 가능세계들 중에 곧 비가 올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나. 내가 아는 바가 구현되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곧 비가 온다.

당위 양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능세계적인 해석을 얻을 수 있다.

(8) 가. 지금 떠나도 돼.

나. 지금 떠나야 해.

어떤 업무에 대하여 ‘12시까지 현 위치에서 근무한다’는 규칙이 있는 상황에서 위의 발화들이 가능하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과 필연성의 의미를 가진다.

(9) 가. 주어진 규칙에 따르면, 지금 떠나는 것이 가능해.

나. 주어진 규칙에 따르면, 지금 떠나는 것이 필연적이어야.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과 필연성은 가능세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0) 가. 주어진 규칙이 구현되는 가능세계들 중에서 지금 떠나는 가능세

계가 존재한다.

나. 주어진 규칙이 구현되는 모든 가능세계들에서 지금 떠난다.

다음은 동적 양상의 예이다.

(11) 가. 철수는 이길 수 있어.

나. 철수는 이겨야 해.

경기에 임하게 될 철수가 상대방 선수에 비해 힘이 세고 순발력이 좋은 여건이라면, 위의 발화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과 필연성을 표현하고 있을 것이다.

(12) 가. 철수의 내적 능력에 따르면, 철수가 이기는 것이 가능해.

나. 철수의 내적 능력에 따르면, 철수가 이기는 것이 필연이야.

이 가능성과 필연성은 가능세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포착할 수 있다.

(13) 가. 철수의 내적 능력이 구현되는 가능세계들 중에서 철수가 이기는 가능세계가 있다.

나. 철수의 내적 능력이 구현되는 모든 가능세계들에서 철수가 이긴다.

이상과 같이 인식 양상, 당위 양상, 동적 양상의 가능과 필연의 예들을 가능세계를 이용하여 해석해 보았다. ‘현실의 일부일 필요가 없는 상황’에 대한 가능성과 필연성의 양상적 의미가 가능세계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포착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위에서 포착된 가능세계의 개념을 보다 형식화하여 나타내는 방식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인식 양상, 당위 양상, 동적 양상의 예들을 가능세계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두 가지 있다.

(14) 가. 고려의 대상이 되는 가능세계의 영역을 정하는 기준

: 내가 아는 바, 주어진 규칙, 철수의 내적 능력

나. 가능세계의 영역에 작용하는 양화적 힘

: 가능, 필연

첫째, 고려되는 가능세계를 선택함에 있어서 인식 양상, 당위 양상, 동적 양상이라는 양상의 종류를 반영하는 기준이 관여를 한다. '내가 아는 바가 구현되는 가능세계들', '주어진 규칙이 구현되는 가능세계들', '철수의 내적 능력이 구현되는 가능세계들'에 그 기준들이 반영되어 각각 인식 양상, 당위 양상, 동적 양상에 해당함을 보여 준다. 둘째, 선택된 가능세계들의 집합에 대해 작용하는 양화적 힘이 표시된다.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모든 가능세계들에서'는 각각 가능(\exists)과 필연(\forall)의 양화적 힘이 작용함을 표시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모든 양상 표현에서 실현되는데, 그 결과는 양화 현상을 표상하는 삼부구조(tripartite structure)로 실현된다.¹² 우선 인식 양상의

12 삼부구조는 문장에 작용하는 양화적 힘을 포착하기 위한 표상이다. 존재 양화(\exists)와 보편 양화(\forall)의 두 가지 양화만을 표상할 수 있는 술어논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언어에서 나타나는 무수한 양화적 힘을 포착할 수 있는 일반양화사(generalized quantifier)적 표상 방식이다.

어떤 학생은 영리하다

$\exists x$ (학생(x)) (영리하다(x))

모든 학생은 영리하다

$\forall x$ (학생(x)) (영리하다(x))

대부분의 학생은 영리하다

MOSTx (학생(x)) (영리하다(x))

많은 학생은 영리하다

MANYx (학생(x)) (영리하다(x))

예를 삼부구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

(15) 가. $\exists w$ (내가 아는 바가 구현되는 가능세계(w)) (곧 비가 오다(w))

나. $\forall w$ (내가 아는 바가 구현되는 가능세계(w)) (곧 비가 오다(w))

삼부구조는 연산자(operator: '∃w'), 제약부(restrictor: '내가 아는 바가 구현되는 가능세계(w)'), 작용역(nuclear scope: '곧 비가 오다(w)')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연산자의 힘이 제약부에 작용하면서 작용역의 명제적 내용이 실현되는 해석을 표상한다.

위의 삼부구조가 가지는 구체적인 해석을 알아보자. '내가 아는 바'는 먹구름이 끼었다거나 바람이 세게 분다거나 하는 정보들이므로 {먹구름이 끼었다, 바람이 분다}와 같이 두 명제들의 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로부터 제약부인 '내가 아는 바가 구현되는 가능세계들'은 이 두 명제가 모두 참이 되는 가능세계들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먹구름이 끼었다'가 참이 되는 가능세계들의 집합이 $\{w_1, w_3, w_7, w_{77}, w_{100}\}$ 이고, '바람이 분다'가 참인 가능세계의 집합이 $\{w_1, w_5, w_7, w_{77}, w_{98}\}$ 이라면 이 두 명제가 참이 되는 집합은 (16가)와 같다. 그리고 작용역을 이루는 '곧 비가 오다'가 참이 되는 가능세계들의 집합을 (16나)와 같이 $\{w_1, w_7, w_{101}\}$ 이라고 가정해 보자.

(16) 가. 내가 아는 바가 구현되는 가능세계들의 집합: $\{w_1, w_7, w_{77}\}$

나. 곧 비가 오는 가능세계들의 집합: $\{w_1, w_7, w_{101}\}$

이제 (15가/나)의 구체적 해석을 얻을 수 있다. (15가)는 내가 아는 바가 구현되는 가능세계들 중에 '곧 비가 오다'가 참인 가능세계가 있음을 뜻한다. 즉, (16가)의 집합과 (16나)의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 된다. 교집합이 $\{w_1, w_7\}$ 이므로 (15가)는 참이 된다. 다음으로, (15나)는 내가 아

는 바가 구현되는 가능세계들이 모두 ‘곧 비가 오다’가 참인 가능세계임을 나타낸다. 즉, (16가)의 집합이 (16나)의 집합의 부분집합이면 참이 된다. 그런데 (16가)의 집합이 (16나)의 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므로 거짓이 된다.

당위 양상과 동적 양상의 예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삼부구조를 부여할 수 있다.

(17) 가. $\exists w$ (주어진 규칙이 구현되는 가능세계(w)) (지금 떠나다(w))

나. $\forall w$ (주어진 규칙이 구현되는 가능세계(w)) (지금 떠나다(w))

(18) 가. $\exists w$ (철수의 내적 능력이 구현되는 가능세계(w)) (철수가 이기다(w))

나. $\forall w$ (철수의 내적 능력이 구현되는 가능세계(w)) (철수가 이기다(w))

이러한 삼부구조의 해석 방식은 양상문의 가능세계적 해석을 그대로 반영한다. 양상문이 가능세계에 대한 양화적 해석으로 포착되므로, 양화적 해석 전반에 적용되는 삼부구조는 매우 적절한 표상을 제공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양상에 대한 가능세계의미론적 접근은 Kratzer (1977, 1981, 2012)에 의해 전개되어, 양상에 대한 형식의미론적 설명의 근간을 이룬다. Kratzer의 이론은 양상논리(modal logic)를 기반으로 자연언어의 양상 표현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축된 것이다.¹³ Kratzer는 자연언어의 양상 현상을 포착하기 위하여 양상논리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발전시켰다. 첫째, Kratzer (1977)은 하나의 양상 표현이 여러 해석을 가지는 현상을 수용하기 위하여, 하나의 접근가능성 관계 함수(accessibility relation function)가 맥락에

13 양상논리는 술어논리(predicate logic)에 가능(possibility, \Diamond)과 필연(necessity, \Box)의 두 연산자가 덧붙여진 논리언어이다. 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가능세계를 도입하고 가능세계 간의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에 근거하여 양상 명제의 진리치를 논하였다. 양상 명제 $\Diamond p$ 는, 접근가능한 어떤 가능세계에서 p 가 참이면 참이 된다. $\Box p$ 는, 접근가능한 모든 가능세계에서 p 가 참이면 참이 된다. 그리고 접근가능성은 인식적(epistemic)인 것과 당위적(deontic)인 것이 있다.

따라 여러 다른 접근가능성 관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예를 들어 ‘must’가 인식적 혹은 당위적 맥락에 따라 각각 인식 양상 혹은 당위 양상으로 실현됨을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Kratzer (1981)은 자연언어의 양상 표현이 가능(◇)과 필연(□)의 두 가지 강도(strength)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도(grade)로 나타남을 포착하기 위하여, 가능세계들의 집합에 순서를 부여하여 다양한 정도의 강도가 구현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necessity(‘must’), weak necessity(‘It is probable that’), possibility(‘might’), slight possibility(‘There is a slight possibility that’), good possibility(‘There is a good possibility that’), better possibility(‘It is more likely that ... than that’)과 같은 정도성이 강구되었다.

유형론적으로 양상 표현들은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중의성은 양상의 강도(strength of modality)와 양상의 유형(type of modality)의 두 관점에서 실현된다.¹⁴ 그래서 세 종류의 중의성이 실제로 관찰된다. 예를 들자면, 영어는 양상의 강도가 어휘적으로 명세되고 양상의 유형이 중의적인 반면에 St’at’imcets어에서는 반대로 유형이 어휘적으로 명세되고 강도가 중의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말레이어에서는 어떤 것은 영어 식이고 어떤 것은 St’at’imcets어 식으로 중의성을 보인다. 한국어는 영어 식의 중의성을 보인다.¹⁵ 이와 같은 중의성의 실현이 가능세계의미론적 설명에 의해 매우 명시적으로 포착된다. 가능세계의미론적 설명이 채택하는 삼부구조에 따르면 양상 유형의 중의성은 제약부의 종류에 의해, 양상 강도는 연산자의 종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14 P. R. Kröger (2019), *Analyzing Meaning*, Berlin: Language Science Press, pp. 305-306.

15 van der Auwera and Ammann (2013)에 따르면, 관찰한 207개의 언어 중에서 105개 언어는 인식 양상과 당위 양상을 아우르는 양상표지가 없고, 102개 언어에서 이 둘을 아우르는 표지가 나타나는데, 이 102개 언어 중에서 36개 언어에만 필연과 가능 모두를 위한 표지가 있고 66개 언어에는 필연과 가능 중 하나에만 그러한 표지가 나타난다. 한국어는 이 36개 언어의 경우에 해당할 것인데, 우연적 구성을 통해 다양한 양상 표현이 실현된 결과이다.

4. 한국어 우연적 구성

우리가 위에서 예로 든 한국어 양상 표현들 중에는 우연적 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우연적 구성이 양상 표현인지에 대해 모든 연구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박재연(2006)은 우연적 구성을 양상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우연적 구성이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연적 구성이 우리가 택한 양상의 핵심 기능인 ‘현실의 일부일 필요가 없는 상황에 대한 언급’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고는 우연적 구성이 한국어 양상의 중추를 이룬다고 생각한다. 우연적 구성은 매우 정연한 양상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매우 정교한 양상적 의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4.1. 우연적 구성의 양상 체계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양상에 대해 그 예들을 몇 개씩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 가. 인식 양상

가능: ‘-ㄹ 수 있-’, ‘-ㄹ지 모르-’

필연: ‘-어야 하-’, ‘-임에 틀림없-’

나. 당위 양상

가능: ‘-ㄹ 수 있-’, ‘-어도 되-’, ‘-어도 좋-’

필연: ‘-어야 하-’, ‘-어야 되-’

다. 동적 양상:

가능: ‘-ㄹ 수 있-’

필연: ‘-어야 하-’, ‘-ㄹ 수 없-’

위 예들에 대해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우선 세 종류의 양상에서 모두 우연적 구성의 예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양상에서 가능과 필연의 대립이 나타난다. 이것은 한국어 우연적 구성이 아주 다양하고 정연한 양상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이 양상적 의미를 가지는 우연적 구성은 매우 풍부한데, 이들의 양상적 의미에 대한 직관들이 연구자들 간에 상당히 차이가 난다. 특히 우연적 구성들의 다기능(polyfunctionality)에 대해 의견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 양상 표현에서는 양상의 유형에 따라 중의성이 발생하고 우연적 구성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아래에서는 ‘-ㄴ 수 있-’와 ‘-어야 하-’를 예로 들어 우연적 구성의 다기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ㄴ 수 있-’이 사용되는 아래의 예들은 각각 인식 양상, 당위 양상, 동적 양상의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

- (20) 가. 철수는 집에 있을 수 있어.
 나. 철수는 지금 떠날 수 있어.
 다. 철수는 이길 수 있어.

(20가)부터 살펴보자. 철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철수가 지금 시간에 잘 가는 곳이 도서관, 단골 카페 등인데 그 곳들에는 철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20가)를 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는 화자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여 추론해 보니 철수가 집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된다. 인식 양상의 기능에 해당한다. 다음은 (20나)이다. 철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끝내고 철수가 그 장소를 떠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철수가 맡은 일을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하고서 (20나)를 발화하는 경우이다. 주어진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철수가 지금 떠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된다. 이것은 당위 양상의 기능에 해당한다. (20다)를 살

펴보자. 철수가 운동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 철수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철수가 이길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를 발화할 수 있다. 이는 동적 양상의 가능에 해당하는 쓰임이다.

우리는 단지 위의 예들이 각각 인식 양상의 가능, 당위 양상의 가능, 동적 양상의 가능이라는 해석을 받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각 예들이 위와는 다른 해석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지금의 논의와 무관하다. 한편,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ㄴ 수 있-’의 해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Mun (2016)은 동적 양상의 가능이 아니라 필연으로 실현된다고 보았고, Chung (2019)는 인식 양상이나 동적 양상에 비해 당위 양상으로 사용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의 차이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ㄴ 수 있-’은 적절한 상황에서 인식 양상의 가능, 당위 양상의 가능, 동적 양상의 가능에 모두 무난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어야 하-’의 사용을 알아보자. 다음은 각각 인식 양상, 당위 양상, 동적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1) 가. 철수는 집에 있어야 해.
 나. 철수는 지금 떠나야 해.
 다. 철수는 이겨야 해.

(21가)는 철수가 분명히 집에 있음에 틀림없다는 해석을 받을 수 있다. 철수가 지금 있을 만한 곳은 도서관, 단골 카페, 집 밖에는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화자가 도서관과 단골 카페에 철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21가)를 발화한다면 이것은 인식 양상의 필연에 해당한다. 화자의 지식에 비추어 보아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철수가 집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21나)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장소를 바로 떠난다는 규칙이 있는 상황에서 (21나)는 당위 양상의 필연적 해석을 가지게 된다. (21다)가 동적 양

상의 필연을 전달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철수가 상대방에 비해 너무나 월등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철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21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어야 하-’가 당위 양상의 필연으로 사용되는 것에는 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없지만, 인식 양상의 필연과 동적 양상의 필연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된 바가 없다.¹⁶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절한 상황에서 이러한 해석들이 모두 가능함을 확인하게 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근거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ㄴ 수 있-’과 ‘-어야 하-’에 각각 보조사 ‘도’와 ‘만’이 관여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ㄴ 수도 있-’과 ‘-어야만 하-’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다음의 예들에서 이들의 쓰임을 살펴보자.

(22) 가. 철수는 집에 있을 수도 있어.

나. 철수는 지금 떠날 수도 있어.

다. 철수는 이길 수도 있어.

(23) 가. 철수는 집에 있어야만 해.

나. 철수는 지금 떠나야만 해.

다. 철수는 이겨야만 해.

이들은 모두 위에서 살펴본 ‘-ㄴ 수 있-’과 ‘-어야 하-’의 예들과 동일한 해석을 받을 수 있다. 보조사 ‘도’와 ‘만’이 모든 양상의 종류에서 각각 가능과 필연의 표현에 공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가능 및 필연의 표현에 덧붙여지면 가능과 필연의 의미가 강조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은 ‘도’와 ‘만’의 의미에서 비롯될 것이다. ‘철수도 왔다’는 철수가 왔는데 다른

16 명정희(2021b, p. 155)에서 당위 양상뿐만 아니라 인식 양상으로도 가능하다는 관찰이 보인다.

사람도 왔음을 나타낸다. 철수가 온 사람들의 집합에 들어 있음을, 즉 철수가 해당 개체로 가능함을 나타낸다. ‘철수만 왔다’는 철수가 왔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왔음을 나타낸다. 철수가 유일한 해당 개체임을, 즉 필연적 개체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도’와 ‘만’의 의미는 ‘-ㄴ 수(도) 있-’과 ‘-어야(만) 하-’가 세 가지 양상에서 각각 가능과 필연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과 잘 부합된다.

둘째, 양상 논리에서 가능(\diamond)과 필연(\square) 사이에 성립하는 (24)의 등치 관계가 ‘-ㄴ 수 있-’과 ‘-어야 하-’ 사이에 나타난다.

$$(24) \sim\diamond\sim p = \square p$$

- (25) 가. 철수는 집에 없을 수 없어 = 철수는 집에 있어야 해
 나. 철수는 지금 안 떠날 수 없어 = 철수는 지금 떠나야 해
 다. 철수는 이기지 않을 수 없어 = 철수는 이겨야 해

우리는 철수가 집에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철수는 지금 집에 없을 수 없어. 집에 있어야 해’와 같은 발화를 할 수 있다. (25가)의 등치 관계가 확 인된다. (25나)와 (25다)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ㄴ 수 있-’와 ‘-어야 하-’ 사이에 메타언어적 부정(metalinguistic negation)이 관찰된다.

- (26) 가. 철수가 집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어야 해.
 나. 철수가 지금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떠나야 해.
 다. 철수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겨야 해.

‘-ㄴ 수 있-’의 메타언어적 부정이 ‘-어야 하-’에 해당함을 세 가지 양 상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ㄴ 수 있-’와 ‘-어야 하-’가 세

가지 양상 모두에서 <all, some>과 같이 <-어야 하-, -ㄴ 수 있->의 척도를 형성함을 보여주므로, 이들이 각각 가능과 필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근거에서, '-ㄴ 수 있-'와 '-어야 하-'가 인식, 당위, 동적 양상에서 모두 각각 가능과 필연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의 우연적 구성에서 나타나는 양상적 다기능이 매우 체계적임을 보여 준다. 주요 양상 부류 모두에서 가능과 필연의 대립이 한 쌍의 양상 표현을 통해 실현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듯하다. 본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다양한 우연적 구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어 양상 체계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의 양상 체계는 매우 풍부하며 그 주된 근거가 우연적 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2. 우연적 구성의 합성성

어떤 우연적 구성 전체가 하나의 양상적 의미를 표현하지만, 이 양상적 의미는 우연적 구성을 이루는 각 요소들의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위 양상의 필연 표현인 '-어야 되-'와 가능 표현인 '-어도 되-'를 예로 들어 양상 표현인 우연적 구성들의 의미의 합성성을 검토해 보자. 우선 이들은 조건절 어미 '-어야'/'-어도'와 동사 '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요소의 의미들과 이들이 결합하는 방식에 의해 양상적 의미가 도출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해당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되-'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우연적 구성들에서는 일정한 수준을 만족시킨다는 의미이다. '좋다', '괜찮다' 등과 같은 의미이다. 예를 들어 '철수는 된다.'는 '철수는 일정한 수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¹⁷

— www.kci.go.kr
17 이러한 '되-'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Chung (2019)와 명정희(2021b)에서 자세히 다루어

다음으로, 조건절 어미 ‘-어야’/‘-어도’의 의미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 먼저 보조사 ‘-는’, ‘-만’, ‘-도’가 사용되는 다음의 예들을 보자.

- (27) 가. 철수는 된다.
 나. 철수만 된다.
 다. 철수도 된다.

이 예들에는 방금 살펴본 서술어 ‘되-’가 사용되고 있고, 보조사만 다를 뿐이다. 이들은 모두 ‘철수가 일정한 수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이에 더하여 각기 다른 의미들을 추가적으로 가지는 듯하다. ‘철수만 된다’는 ‘철수 외에는 일정한 수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부가적 의미를 가지고, ‘철수도 된다’는 ‘철수 외에도 일정한 수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부가적 의미를 더 가진다. 그리고 ‘철수는 된다.’는 이러한 부가적 의미 없이 철수에 대해서만 기술한다고 볼 수 있다.¹⁸

보조사 ‘-는’, ‘-만’, ‘-도’가 사용되는 문장들 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가 조건절 어미 ‘-으면’, ‘-어야(만)’, ‘-어도’가 사용되는 아래의 예문들에서도 나타난다.

- (28) 가. 철수가 가면 된다.
 나. 철수가 가야(만) 된다.
 다. 철수가 가도 된다.

우리는 (28가)를 ‘철수가 가는 것이 괜찮다/좋다’와 같은 해석을 가지는

졌다. 본고에서 택하고 있는 ‘되-’의 의미도 이들의 논의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18 ‘철수는 된다’가 ‘다른 사람은 안 될지 몰라도 철수는 된다’와 같이 부가적 의미를 동반할 수도 있는데, 이는 ‘는’의 대조적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대조의 의미가 없는 화제 의미의 ‘는’을 다루고 있어서 이러한 부가적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것은 조건문의 전건을 명제(‘철수가 가는 것’)로 보고, 이 명제가 술어인 ‘괜찮다/좋다’의 논항이 된다고 처리하는 것이다.¹⁹ 명제는 가능세계들의 집합이므로 이 명제는 철수가 가는 것이 참이 되는 가능세계들의 집합이다. ‘괜찮다/좋다’는 발화시에 주어진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허용이 되는 범위를 나타낸다. 즉, 발화시에 주어진 조건들이 모두 참이 되는 가능세계들의 집합이다. 그러므로 (28가)는 ‘철수가 가는 것이 참이 되는 가능세계들의 집합’이 ‘주어진 조건들이 모두 참이 되는 가능세계들의 집합’에 속함을 뜻한다. 그런데 ‘주어진 조건들이 모두 참이 되는 가능세계들의 집합’은 당위적으로 최선의 세계들(deontically best worlds)의 집합으로 간주할 수 있다.²⁰ 따라서 (28가)는 철수가 가는 것이 참이 되는 가능세계들의 집합이 당위적으로 최선의 세계들의 집합에 속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28나)를 살펴보자. ‘철수가 가야(만) 된다’는 ‘철수가 가면 된다. 그런데 다른 것은 안된다.’와 같이 해석된다. (28가)의 논의를 참조하면, 철수가 가는 것이 참이 되는 가능세계는 당위적으로 최선의 세계이고, 다른 가능세계는 당위적으로 최선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당위적으로 최선의 세계들의 집합은 모두 철수가 가는 것이 참이 되는 가능세계들의 집

19 영어 조건문 ‘I would be glad if you came.’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가. If you came I would be glad about something.

나. (If you came) I would be glad about the fact that you came.

(가)는 일반적인 조건문으로 가정적 해석(hypothetical reading)을 받지만, (나)는 전건이 후건 술어의 논항이 되는 해석, 즉 비논리적 해석(nonlogical reading)을 받는다. (나)와 같은 해석을 취하는 입장을 조건문의 전건에 대한 지시 이론(referential theory)이라고 한다[Kaufmann and Tamura (2020), Schlenker (2004)]. 우리는 지금 이 지시 이론을 따르고 있다.

20 ‘당위적으로 최선의 세계들의 집합’이란 주어진 조건들이 모두 참이 되는 가능 세계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세계들을 간추려 만든 집합을 말한다. 우리는 앞에서 Kratzer (1981)이 양상 표현의 정도성을 포착하기 위하여 가능 세계들의 집합에 순서를 부여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 순서에 의해 가장 바람직한 세계들이 가려질 수 있는데, 당위적 순서에 의해 추출되는 가장 바람직한 세계들의 집합이 바로 ‘당위적으로 최선의 세계들의 집합’이다.

합이라는 해석이다. 이것은 당위적으로 최선의 세계들의 집합에 보편 양화가 작동하므로, 당위 양상의 필연적 의미이다.

(28다)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철수가 가도 된다.’는 ‘철수가 가면 된다. 그리고 다른 것도 된다.’의 의미이다. 철수가 가는 것이 참이 되는 가능세계는 당위적으로 최선의 세계이고, 다른 가능 세계도 당위적으로 최선의 세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당위적으로 최선의 세계들의 집합의 일부가 철수가 가는 것이 참이 되는 가능세계들의 집합이라는 해석이다. 이것은 당위적으로 최선의 세계들의 집합에 존재 양화가 작동하므로, 당위 양상의 가능적 의미이다.

이상과 같이, 조건절 어미 ‘-으면’, ‘-어야(만)’, ‘-어도’가 동사 ‘되-’와 결합한 구성인 (28)의 예들이 보조사 ‘-는’, ‘-만’, ‘-도’가 동사 ‘되-’와 결합한 (27)의 예들에 그대로 대응하는 의미적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조건절 어미 및 보조사 각각의 의미가 동사 ‘되-’의 의미와 결합하여 전체 문장의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는, ‘-어야(만) 되-’의 필연적 당위 양상의 의미와 ‘-어도 되-’의 가능적 당위 양상의 의미가 합성적으로 도출됨을 뜻한다. 즉, 조건절 어미 ‘-어야(만)’와 ‘-어도’의 의미가 각각 평가술어 ‘되-’의 의미와 결합하여 필연적 당위 양상과 가능적 당위 양상의 의미에 이른다. 이러한 우연적 구성의 합성적 의미는 우연적 구성 전반에 걸쳐 실현되는 것으로 예측되며, 우연적 구성이 가지는 정연한 체계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5. 결론

한국어의 양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며 주로 기술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많은 연구들이 있었던 만큼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논쟁들이 계속되어 왔다. 양상이라는 현상 자체가 가

지는 복잡성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주의적 연구의 대부분이 Lyons (1977, p. 452)의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는 양상에 대한 정의를 공유한다는 사실이다. 양상에 대한 정의를 공유하면서도 양상의 범위 및 분류 등에 대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이 정의를 이루는 ‘명제’나 ‘태도’ 자체가 다루기 힘든 까닭에 다양한 견해가 나타났을 법도 하다. 그러나 본고는 이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는 정의가 부적절하게 수용되거나 인용되어 왔음을 밝히고, 한국어 양상의 정의와 표현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양상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본고는 양상 표현들이 현실은 아니지만 현실과 모종의 관련을 맺는 세상들에 대한 것이라는 직관을 반영하여, 양상을 ‘현실의 일부일 필요가 없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범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가능세계의 개념이 핵심적으로 관여함을 논하였고, 따라서 가능세계의미론을 수용하는 형식의미론이 양상의 설명에 매우 적합함을 피력하였다.

한편 본고는 한국어 양상 범주에서 우연적 구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우연적 구성은 매우 풍부한 양상 표현들을 제공해 주며, 또한 매우 정연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관련되는 가능세계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 인식 양상, 당위 양상 그리고 동적 양상의 세 가지 양상의 하위 분류 모두에서 가능과 필연의 체계적 대립을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형식의미론적 연구는 가능세계의 종류 및 가능과 필연의 대립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까닭에, 형식의미론적 접근을 통해, 이와 같이 정연한 우연적 구성의 양상 체계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참고문헌

- 김건희(2016), 「국어 양태의 특수성: 다른 양태소 및 문법소와의 공기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70, 한국어학회, pp. 1-54.
- 김태인(2019), 「한국어 문장의 의미 층위에 대한 연구: 사건, 명제, 사실, 화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명정희(2021a), 「한국어 양태 구문의 의미 해석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명정희(2021b), 「'-어야/-어도 되-' 양태 구문의 구조와 의미 해석」, 『언어학』 제91호, 한국언어학회, pp. 139-164.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 박진호(2011), 「시제·상·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pp. 289-322.
- 손혜옥(2016), 「한국어 양태 범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재목(2009), 「인식양태와 증거성」, 『한국어학』 44, pp. 27-850.
- 양정석(2017), 『주관적 판단의 문법: 주관성 형용사, 양상, 증거성』, 한국문화사.
- 오승은(2018), 「한국어 양태 표현 연구: 추측과 의도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웅(1999), 「국어의 양태 체계 확립을 위한 시론」, 『관악어문연구』 26, pp. 317-339.
-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pp. 211-249.
- 조일영(1998), 「국어 선어말어미의 양태적 의미 고찰」, 『한국어학』 8, 한국어학회, pp. 39-66.
- van der Auwera, J. and A. Ammann (2013), "Overlap between Situational and Epistemic Modal Marking,"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 Line* (ed. by D. Matthew and M. Haspelmath), Leipzig: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 Bybee, J., R. Perkins, and W. Pagliuca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 of the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ung, W. J. (2019), "Decomposing Deontic Modality: Evidence from Korean," *Journal of Semantics* 36, 665-700.
- De Haan, F. (1999), "Evidentiality and Epistemic Modality: Setting Boundaries," *Southwest Journal of Linguistics* 18, 83-101.
- Hockett, C. (1960), "The Origin of Speech," *Scientific American* 203(3), pp. 88-97.
- Huddleston, R. and K. Pullum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ufmann, M. (2017), "What 'may' and 'must' May be in Japanese," *Japanese/ Korean Linguistics* 24 (ed. by K. Funakoshi, S. Kawahara, and C. Tancredi), Stanford, CA: CLSI publications, pp. 103-126.

- Kaufmann, M. and S. Tamura (2020), "Possibility and Necessity in Japanese: Prioritizing, Epistemic, and Dynamic Modality," *Handbook of Japanese Semantics and Pragmatics* (ed. by W. Jacobsen and Y. Takubo), Berlin: Walter de Gruyter, pp. 537-588.
- Kratzer, A. (2012), *Modals and Condition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ratzer, A. (1981), "The Notional Category of Modality," *Words, Worlds, and Contexts: New Approaches to Word Semantics* (ed. by H-J. Eikmeyer and H. Rieser), Berlin: Walter de Gruyter, pp. 38-74.
- Kratzer, A. (1977), "What 'must' and 'can' Must and Can Mea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 pp. 337-355.
- Kröger, P. R. (2019), *Analyzing Meaning*, Berlin: Language Science Press.
- Lyons, J. (1977), *Semantics*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n, Bokyung (2016), "The Interaction of Modality and Tense in Korean," Georgetown University Ph.D. thesis.
- Palmer, F. R. (2001), *Mood and Modality* (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er, F. R. (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rtner, P. (2009), *Mod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lenker, P. (2004), "Conditionals as Definite Descriptions," *Research on Language and Computation* 2(3), pp. 417-462.
- von Wright, E. H. (1951), *An Essay in Modal Logic*, Amsterdam, Netherlands: North-Holland.

원고 접수일: 2022년 4월 11일, 심사 완료일: 2022년 5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2년 5월 18일

ABSTRACT

Formal Semantics Approach to the Category of Modality in Korean

Jun, Youngchul*

Most of studies on Korean modality have been done with the descriptive point of view, heavily based on the so-called Lyons' (1977, p. 452) definition, "the speaker's attitude on a proposition".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inadequacy of such a perspective and definition. It also aims to propose an alternative definition of modality as the category which is used to speak about the situations which need not be a part of actuality. The definition reflects our intuition that modal expressions manifest things about the worlds which are not actuality but related to it in a particular sense. This paper shows that the concept of possible worlds is very useful in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modality. Furthermore, it demonstrates that formal semantics approach should be appropriate to account for modality because the approach contains possible worlds semantics.

The current paper emphasizes the role of periphrastic constructions in the category of modality in Korean. The periphrastic constructions offer various modal expressions, indicating a well-organized system of modality. It is found that the contrast of possibility and necessity exists through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the three subcategories of modality: epistemic, deontic, and dynamic modalities. Thus, as formal semantics has efficient methods to treat possible worlds as well as the contrast of possibility and necessity, it apparently provides an explicit explanation of the modal system of Korean periphrastic constructions.

Keywords Modality, Epistemic Modality, Deontic Modality, Dynamic Modality, Possible Worlds, Possibility, Necessity, Formal Semantics, Possible Worlds Semantics, Periphrastic Constructions